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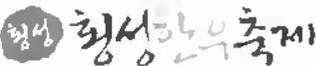
경기지역



FUN 안양시민축제

올해로 8회를 맞이하는 'FUN 안양 시민축제'가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안양시 중앙공원에서 열린다. 안양 최대의 축제인 이 행사는 각종 홍보를 통한 안양시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고 시민의 참여를 통한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열리기 시작했다. 행사는 5개 무대공연 및 각종 전시 시연 등 부대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강원지역



횡성한우축제

횡성군 최대규모의 축제행사인 '횡성한우축제'는 풍년을 기원하고 국민의 평안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었던 '횡성 태풍문화제'의 명칭을 변경하여 2004년부터

새롭게 태어난 축제이다.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횡성한우의 본 고장임을 알리는 계기로 마련함을 물론, 횡성군의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축제로 모든 행사는 횡성한우 중심으로 꾸며진다. 10월 16일부터 20일, 5일간 열리는 행사는 횡성을 섬강둔치 일원에서 개최된다.

충북지역



충주세계무술축제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 제76인 택견을 기반으로 개최되는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오천년 민족혼과 세계무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29개국 51개팀의 수준 높은 국내·외 무술단체들이 대거 참여하여, 풍성한 볼거리와 흥미진진한 축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열리는 축제는 충주 탄금대 유엔평화공원에서 개최된다.

부산경남지역

언양봉계불고기축제

예부터 언양과 봉계는 한우의 육질이 뛰어나 전국적으로 불고기단지로 이름을 떨쳤는데 2006년 언양·봉계의 한우불고기단지가 '먹거리특구'로 선정된 뒤 언양·봉계한우불고기 축제로 열리고 있다. 축제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삼성APT 앞과 두동면 봉계리에서 각각 열리며, 봉계한우, 언양한우만이 가지는 부드러운 육질과 자연 그대로의 맛을 더해 한우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지역

제47회 탐라문화제

전국 10대 향토축제에 꼽힐 만큼 대표적인 행사인 탐라문화제는 제주의 전통 민속문화를 발굴하고 계승하기 위한 취지로 제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행사이다. 주요행사인 불꽃놀이 시가행진, 마을별 민속경연대회, 연극, 음악제, 무용제 등의 행사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진행되고 서귀포시 천지연 광장과 이중섭 거리에서 개최된다.

최고기 이력추적제 — 최고기이력추적제 유통단계 담당자 교육 실시

지난 8월 19일 화요일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팀 윤영렬 사무관 주재로 유통단계 담당자 교육이 축산물등급판정소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오전에는 축산물등급판정사 현장지원전담반(11명)을 대상으로 유통단계 추진계획 및 중점 관리사항, DNA동일성검사 및 시료관리요령 등을, 오후에는 이력추적제 법률 및 도축단계 실시요령 안내, 도축단계 전산입력 및 장비 이용요령 등의 내용으로 도축장 담당자(3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